

회사채에 뭉치돈 몰린다... 사전예약 초과율 356%

대한항공, 회사채 모집 세배 몰려 해외채권투자 메리트 줄어든 탓 기업 영업성적 순항에 믿음 커져

대한항공은 최근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모집에 세 배가 넘는 투자금이 몰렸다.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벌인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5070억원의 사자 주문이 나온 것. 채권시장에선 한진그룹 '오너리스크' 확대로 회사채 발행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예상밖의 결과였다. 대한항공 회사채 등급은 'BBB+'이다.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던 기업이 자금조달시장에서 '갑'이 됐다. 기관투자자들이 불량 기업으로 낙인 찍힌 기업들의 회사채까지 서로 달려들며 달려들고 있다. 해외 채권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자 기관이 앞다퉈 회사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여기엔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우량 회사채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시장 판단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월 수요예측 금액은 1조2500억원을 기록했고, 미달

액(수요예측액-밴드포함액)은 없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초과액(밴드포함액-수요예측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한 점이다. 초과율은 356.6%다.

AA급에서는 초과율 370.5%를 기록하며 7월 277.2%에 비해서도 더 높았다.

SK하이닉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에 각각 1조4000억원, 1조1000억원, 1조1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며 흥행 몰이했다.

A급 기업들도 293.8%의 초과율을 보이며 7월 316.8% 수준을 유지했다. 대신 에프앤아이(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이날 기관을 상대로 벌인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총 2380억원의 매수주문이 몰렸다. 발행액도 1500억원으로 늘렸다.

BBB급에서는 한진칼이 BBB0의 낮은 등급에도 불구하고, 높은금리 매력에 힘입어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기록해 초과율 264.3%를 나타냈다.

회사채 몸값은 더 비싸질 전망이다. 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채권 인수 경쟁이 치열해져서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관 뭉치돈이 채권시장에 몰리면서 권장가격(민평금리)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이 팔려 나가는 사례가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잖은 기업들이 민평금리 아래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평금리란 민간 채권평가사들이 평가한 회사채 금리 평균값이다. 크레딧 시장에서 민평금리는 새롭게 시장에 나오는 회사채의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사채 발행금리가 민평금리보다 낮았다는 것은 권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쳐주고 채권을 인수한 투자자가 많았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영업 성적 전망도 괜찮다. 투자정보업체 에프앤이(에프앤이)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8곳의 3분기 매출액은 474조원으로 전년 동기(443조원) 대비 6.9%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 또한 54조원으로 전년 동기(48조원) 대비 13.1%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실적이 좋다는 것은 시장의 믿음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한화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AA급 이상 위주로 차환수요가 있다. 최근 투자 수요 우위 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증액 발행 가능성이 높다"면서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 발행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회사채 수요예측 현황)

(자료=신한금융투자)

종목명	신용등급	수요예측	밴드포함	발행확정	만기
대신에프앤아이24-1	AA0	400	1,100	600	2.0
대신에프앤아이24-2	AA0	400	1,280	900	3.0
오케이캐피탈280	BBB+	200	250	200	1.2
SK하이닉스219-1	AA0	1,800	10,200	2,500	5.0
SK하이닉스219-2	AA0	700	3,700	900	7.0
현대파워텍30-1	AA-	700	2,400	900	3.0
현대파워텍30-2	AA-	300	600	300	5.0
현대오일뱅크118-1	AA-	600	3,700	700	3.0
현대오일뱅크118-2	AA-	600	5,200	900	5.0
현대오일뱅크118-3	AA-	300	2,300	400	7.0
현대제철124-1	AA0	500	3,000	900	3.0
현대제철124-2	AA0	1,300	5,500	2,000	5.0
현대제철124-3	AA0	700	2,500	2,100	7.0
한진칼1	BBB0	500	2,300	700	1.5
SK285-1	AA+	1,200	5,400	1,500	5.0
SK285-2	AA+	600	1,600	600	7.0
SK285-3	AA+	1,200	3,300	1,200	10.0
삼양패키징1	A+	500	2,740	500	3.0



이스타항공 항공기

LCC, '늦캉스' 고객잡기 특가상품 봇물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늦은 휴가철 여행객 잡기 경쟁에 나선다. LCC들은 현재 여름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가을 여행객을 위해 항공권 특가 판매를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5일 LCC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제주관광 그랜드세일' 기간 동안 제주행 항공권을 특가 판매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웹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기준 총액운임(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운임)이 김포, 부산(김해), 청주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권을 최저 1만9600원부터 살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대구와 광주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권은 최저 2만2500원부터 판매된다.

진어는 다음달 27일 사이 운항하는 한국발 국제선 전 노선 왕복 항공권을 예매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프로모션 코드 이벤트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진어 공식 모바일 웹, 앱을 통해 원하는 노선 및 일정을 검색 후 프로모션 코드 입력창에 'WHY15'를 입력하면 자동 적용된다.

에어서울은 오는 11일까지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편도 총액 4만3000원)만 내면 일본 나가사키 여행이 가능한 'Forever(영원) 특가' 프로모션 2탄을 실시한다. 에어서울에 따르면 영원특가란 에어서

울 '항공운임 0원'의 파격 특가는 계속된다는 의미의 특가 프로모션이다. 일본 나가사키 노선에서 '항공운임 0원' 좌석 약 1000개가 오픈된다. 소비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편도 총액 4만4000원, 왕복 총액 5만2800원)만 결제하면 된다.

두 차례에 걸쳐 순차로 특가 좌석이 열려 처음 원하는 날짜를 예매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이틀 뒤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12월부터 1월까지 출발 가능한 항공권에 대한 특가 이벤트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매달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스타 얼리버드'를 통해 출발 3~4개월 전 항공권을 미리 실용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고정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22개 노선(국내선 4개, 국제선 18개)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얼리버드 항공권은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국내선 1만7900원, 동북아노선 7만5900원, 동남아노선 12만5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현재 가을맞이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런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아직은 생소한 지선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가을 휴가철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많은 만큼 이벤트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

저축은행, 3%대 예·적금 상품 '화수분'

최고금리 '안양저축은행' 3.10% 5000만원 이하 분산예치가 안전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오름세를 타며 이자 한푼이 아쉬운 금융 소비자의 종잡돈 마련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저축은행은 수신을 늘리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9월에도 추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61%다. 정기적금은 2.67%의 이자를 주고 있다. 지난해 대비 0.34%포인트 오른 것이다.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은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과 키움에스저축은행의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 상품이다. 1년 만기 기준 각각 연 2.85% 금리를 제공한다.

오투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은 2.83%로 두 번째로 높았고,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비대

면)', '회전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 상품이 2.82%로 그 뒤를 이었다.

정기적금 상품 가운데 최고우대금리가 높은 상품은 안양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과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으로 3.10%(1년만기 기준)까지 금리를 우대해 준다.

이어 금화저축은행 'e정기적금', '비대면-정기적금', '정기적금', 'e-행복더드립정기적금', 삼호저축은행 '정기적금(인터넷·모바일)', 솔브레인지축은행 '쏟 쏟아 정기적금',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 아주저축은행 '삼삼오오함께만든적금', 안국저축은행 '정기적금(비대면)', 'e-정기적금', 안양저축은행 '정기적금', 키움에스저축은행 'SB톡톡 키워드림 정기적금'은 3.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일부에선 금리 인상기에 정기 예·적금 가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돈이 일정 기간 묶이는 탓에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싶어 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된 금리

의 100%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입기간을 짧게 가져가거나 저축은행이 내놓는 특판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판 상품은 통상 중도 해지 시에도 약정금리를 보장해 주거나 특정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 때문이다.

OK저축은행의 'OK안심정기예금' 특판은 중도 해지시에도 약정금리 연 2.7%를 보장해 주며, IBK저축은행의 '퍼드림예금' 특판은 36개월 만기 최대 연 3.0%의 금리를 준다.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파산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전성을 잘 살핀 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기타 재무건전성 지표를 확인해 건전한 저축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저축은행은 은행과 같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어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외환보유액 4011억 \$... 달러강세에 감소세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11억3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2월 말 3948억달러에서 7월 말 4024억5000만달러로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반년 만에 소폭 줄었다.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지수(DXY)는 지난달 말 기준 94.72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반면 미 달러 대비 호주달러는 2.0%, 파운드는 1.0%, 유로화는 0.4% 절하됐다.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3728억4000만달러로 20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3000만달러 줄어든 3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예치금은 180억5000만달러로 7억



8000만달러 늘었다. IMF포지션(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은 19억2000만달러,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024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위는 중국(3조1179억달러), 2위는 일본(1조2563억달러), 3위는 스위스(8043억달러) 순이었다. /김희주 기자 hj9@